

## "요나 같았으나 같지 않은"

요나 이야기는 아주 잘 알려진 성경 이야기이자, 구약 성경 중 가장 먼저 번역되는 책이기도 합니다. 일단은 짧으면서도 재미 있는 이야기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말로 번역된 요나 이야기를 아주 좋아하고 잘 이해하고 반응합니다.

이 재미난 이야기는 우리의 상상력을 사로잡을 뿐 아니라 우리 양심 깊이 가책을 주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도망치는 선지자 요나와 쉽게 동일시합니다.

이쑤(Iso)도 요나 이야기가 딱 자기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자기 모어인 마싼(Masan) 언어로 초벌 번역된 요나서 원고가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는 23세에 주님을 만난 아주 잘 나가는 작가였습니다. 그는 그 초벌 원고를 읽고 많은 수정이 필요함을 바로 알아챘습니다. 수소문 끝에 성경번역사역 기관을 알게 되었고, 마싼어 성경번역 팀에 합류해서 요나서를 번역하기 시작 했습니다.

...이쑤는 스스로 물었습니다. "왜 하필 요나서였지?" 바로 답이 나왔습니다. "짧으니까!" 그러나 번역하면서 자신과 요나를 연관 지었습니다. "때로 전 요나와 같은

## 성경과 함께 읽는 성경번역 선교 이야기

Read the Bible, Bless the Bibleless



7/23	7/24	7/25	7/26	7/27	7/28	7/29
아 1-8	을 1-3	암 1-5	암 6-9	은 1-4	호 1-5	호 6-9

태도를 취합니다.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달아나고 싶은 거죠. 나 자신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생각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

여전히 작가로서 야망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제가 하나님을 위해 글을 쓰도록 맡기셨다고 믿습니다. 마싼 말로 많은 걸 나눌 수 있겠지만, 진짜는 성경입니다. 교육이 필요한 사람들과 또 많은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습니다."

(이전 국제 위클리프 웹페이지에서 인용)

현지인 사역자들뿐 아니라 선교사들도 똑 같은 고백을 합니다. 린다 토마스(Linda K. Thomas)는 자신도 요나와 같았다고 합니다. 남편이 위클리프 성경번역 선교회에 헌신해서 아프리카에 가서 일하겠다고 하자 어쩔 수 없이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것을 뒤로 해야 했었습니다. 그러나 깨달은 다음에는 요나와 같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모어로 이야기할 때 그들의 마음이 활짝 열리는 걸 보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개입하셔서 성경없는 부족들을 위해

살게 해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은두쿠바 주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마음의 언어로 성경을 갖게 되면, "마음이 뽕 풀리고, 활짝 열립니다! 그 말씀에 울고, 웃고, 기뻐하고, 노래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부족 안에 계시고, 자기말로 하나님께 이야기한다는 건, 하나님이 더 이상 외부인이 아니란 뜻입니다."

아프리카 지역의 성경번역 사역에 아주 작은 역할을 감당했지만,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은 하늘을 나는 듯 기쁩니다. 하나님께서 제 삶에 개입하시고 하늘나라 사역에 초대해주셔서 이 세대와 오는 세대들을 향한 섬김에 동참케 해주셨습니다! (이전 국제 위클리프 웹페이지에서 인용)

요나가 그랬던 것처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내 가족, 내 교회, 내 민족 안에만 가둬두고 있는 걸로 만족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꺼이 나아가 그분의 복을 다른 민족들과 나누는 것이 참 복된 삶입니다!

- 글: 이규준 그림: 김예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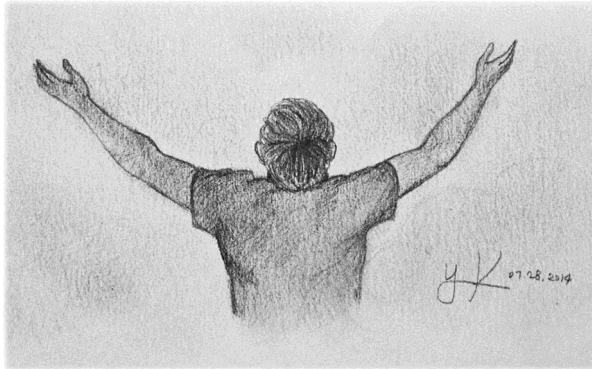
주님, 요나와 같지 않게 부르심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헌신하는 선교사들과 현지인 성경번역 사역자들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모든 민족이 자기 마음의 언어로 하나님의 사랑을 듣고 보고 체험하는 일에 동역하게 해주세요.

성경 번역 삶의 변혁 Translating Scripture, Transforming Lives



## Read the Bible, Bless the Bibleless

July 23	July 24	Tue, July 25	Wed, July 26	Thu, July 27	Fri, July 28	Sat, Jul 29
Son 1-8	Joe 1-3	Amo 1-5	Amo 6-9	Jon 1-4	Hos 1-5	Hos 6-9



### "Like but Unlike Jonah"

words by Gyoojun Lee & illustration by Yaeun Kim

One of the most famous stories in the Bible is Jonah's story. The Book of Jonah is often selected as the first book in the Old Testament for translation into a target language as it is a good and short narrative. People of the target language also love the story; and they usually understand and respond well when it's translated into their language and narrated to them.

This fascinating story of Jonah not only catches people's imagination but also pierces deep into our conscience. A lot of people easily identify themselves with the runaway prophet. Iso is one of the people who found that this story was just for himself. Miraculously the first draft of the Book of Jonah in his language, Masan, was given to this young thriving writer who had known Jesus since age 23. He read it but realized that the draft needed a lot of corrections. He came to know the translation organization and joined the translation team.

"Iso ... began translating the book of Jonah. He was asked, "Why Jonah?" He quickly replied,

"Short book!" While translating, Iso related to Jonah. "Sometimes I have an attitude like Jonah. I want to escape from many things, especially when God speaks. I never thought about others much as I was attending to myself. ...

I still have ambitions about writing but I believe God trusts me to write for Him. God gave me a talent and there are more things to share in the Masan language including the *real* thing, the Bible. I want to help reach and teach the uneducated and many others. I want to help my people." (From former Wycliffe International website)

Not only national workers but also missionaries make the same confession. Linda Thomas said she was like Jonah when she dragged herself to the mission field only because her husband wanted to be a missionary with Wycliffe Bible Translators working in Africa. There are so many things she did not want to leave behind to obey God's calling.

But she was not like Jonah at least when she found how greatly God opens people's hearts by talking to

them in their language. She became so thankful to have been interrupted by God's plan for the Bibleless peoples.

... If people have Scriptures in their own heart language, Bishop Ndukuba says, "They will blow up! They will open up. They will cry, they will laugh, they will rejoice, they will sing! It means God is part of their tribe, is one of them. When they talk to Him, He is not at stranger."

I played a very small role in Bible translation in Africa, but my heart soars ... I rejoice when I recognize God interrupted my life with His divine invitation to join Him and participate in His purposes for my generation-and for generations to come. (From former Wycliffe International website)

Like Jonah, many Christians are content to keep their God-given blessings within the confines of their own family, their own church, and their own nation. What a blessed life it is to be willing to go after God's heart and share His blessings with other nations!



**Week 30 Prayer:** Lord, we thank you for missionaries and national Bible translators who, unlike Jonah, are obedient to their calling, bearing the heart of God. Help us, too, to embrace your heart and partner with them to see all peoples hear, see, and experience your love in their heart language.